

김정초등학교 건축계획연구를 마치며

An Architect's Note on School Building Design

이 정 근

Lee, Jeong-Keun

교육시설에 관한 전문분야가 다른 여러분들이 합동으로 연구에 참여하게되어서 필자로서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에 차서 연구에 임하였다. 첫 모임은 금정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과 관계자들과의 회의로 시작되었다. 여러 해 전에 필자의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학부모로서 학교에 갔을 때의 느낌이 되 살아났다. 우리 사회에 지어지는 여러 용도의 시설물들과 비교할 때 학교시설은 몇 십년전이나 크게 다를 바 없이 낙후된 시설 그대로였고 아이들은 어른들이 마련해 준 시설물 속에서 멧 모르고 자라나고 있었다. 당시의 느낌은 어른들이 해도 너무 한다 하는 생각을 하였었다. 어른들이 여타의 시설에는 많은 투자를 하고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 잘되라고 사교육비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면서 어린 학생들의 보금자리인 학교시설에의 투자에는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앞서게 되었었다. 국민의 세금과 정부 재원 및 일반 투자재원의 흐름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교육시설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조금씩이나마 쌓이고 있다고 보여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교육청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도 종전대로

예산에 따라 통상적으로 집행하려 하다가 연구비를 더 들여서라도 좋은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연구를 의뢰했다하니 교육시설 관계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여러번 회합을 가지는 동안 시설물 개선을 위한 주제 즉 일반적인 통념으로 말하면 건축주가 누구인가를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필요하였다. 원칙으로 말하면 학교의 주 사용자는 어린 학생들이고 또한 그들이 주인이기도 하다. 불특정 국민들의 자녀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국민이 건축주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일정 기간동안 학교 시설물을 유효하게 관장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게되는 교직원 및 교장을 건축주로 가정하고 대화를 지속해 나갔다. 그래서 그들이 구상하고 있는 학급 및 교과과정의 운영계획에 대해 듣고 이에 따라 그들이 필요로하는 학교시설들의 내용들을 파악해 나갔다. 그러나 일선 교육담당자들의 시설계획 구상은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교육청의 예산 승인과 집행을 떠나서는 아무 구속력이 없는 구상에 불과함을 알게되었다. 표면상의 건축주 뒤에는 실질적인 건축주가 있음을 알게되었다. 그러나 교육청은 전반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에 경직되게 매여있으며 일선의 구체적인 필요와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반면 일선 교육 담당자들은 교육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교육환경의 문제들을 최대한

* 정회원, 우리계획 대표, 건축학 박사, 건축사

많이 해결해 보려는 희망과 바람을 프로젝트에 반영하려고 애쓰고 있음이 느껴졌다.

어느 한쪽의 입장이 배타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 없겠으며 양쪽의 추구하는 바가 조화롭게 합의점을 찾아 최선의 결과를 낳기를 희망할 뿐이다. 그러나 연구자의 입장은 학교시설의 현실적인 필요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시설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 나오는 원천이 현실 학교 교육담당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제안과 희망 사항을 건축적으로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미 성안된 교육청의 정책과 예산 배정에 대해 일선 교육담당자들이 구하는 해답 쪽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도움을 주는 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나중에 차차 깨닫게 된 것이지만 학교측에서는 기왕에 예산이 배정된 한에서 학교시설의 문제를 교육과정과 결부해서 구조적으로 틀을 바꾸어 보자는 쪽이었고 교육청에서는 기존 학교시설의 문제가 되어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예산내에서 개보수하여 기존의 틀 안에서 시설의 유지 보수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리하여 학교측에서 제시한 최초의 안은 열린 교육을 목표로한 교실 내부구조의 변경과 본관과 신관을 하나로 연결하는 연결부를 두어 그 곳에 강당이나 여학실을 수용하여 기존 시설의 부족한 점을 수용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교육 지원시설로서의 활용을 염두에 두었다.

연구진과 학교측과의 대화에서 심각히 논의된 바는 교실 벽을 터서 복도를 없애는 것이 과연 열린교육의 기본이나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었다. 교육자와 피교육자간의 정보소통에 있어 교육의 목표와 사고방법, 학습의 기본 태도와 교습기술 등이 더 앞서는 것 아니냐 즉 열어야 할 것은 건물의 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벽이 아니냐하는 논지였다. 실제로 외국에서 보고된 열린 교실의 실제 교육상의 불리한 점 등이 논의 되었다. 그래서 열린 교실형태의 반영은 저층부에 위치한 저학년 교실의 경우 실외 환경과의 연결 등과 결부하여 기존 시설환경을 감안해 일부에 국한하며 대신 전 학년을 통해 교사

의 독립된 연구실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선회하였다. 급식시설은 이미 설계가 끝나고 공사 발주에 들어갔다 하였지만 본관과 신관의 일층 접합부에 위치하여 두 건물 사이의 소통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안의 원칙에 배치되므로 연구의 제안과 더불어 조화될 수 있는 급식시설의 안을 수정 제시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본관과 신관의 연결부에는 새로 화장실을 두어 본관의 반대쪽 끝에 편중된 화장실의 위치때문에 생기는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다.

본관과 신관의 기존 시설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붕과 벽의 누수현상 및 벽으로부터 오는 심한 외풍이라 한다. 그래서 외벽에는 외단열 보수공사를 하고 특히 신관의 옥상에는 학교의 요청대로 방수공사후에 지붕 옥상에서 음악회나 그 밖에 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교육청의 예산집행에 대한 견해와 학교측의 희망사항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연 제안된 안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는 두고 볼 일이며 학교측의 설득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랄 뿐이다.

여러 전공분야의 관계자들이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깊이가 더해진 연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각 연구자간의 소통이 충분히 될 수 없는 연구기간과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각 분야간의 통합과 이를 기초로 한 논리상의 전후 문제해결의 인과관계가 정립될 수 없었던 점이 아쉽다. 뿐만아니라 이미 학교 시설물이 현존해 있는데다 학교측의 시설개선 제안과 교과과정의 개선방안이 이미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구의 성과와 시설물의 설계제안이 일직선상에 전후관계가 성립되기는 불가능하였다. 이번 연구는 교육시설을 설계하기위한 전형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진행되고있는 상황속에 뛰어들어 건축적 해결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경험과 협동작업 등이 앞으로는 더욱 성숙하게 발전하여 척박한 한국의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질을 고양하는 데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된다.